



실전클리닉 & 즐거운 골프

두발 모으고 반스윙하면 임팩트 감각 "확실"

주말판 광주일보 '스포츠'에서는 격주로 '실전 클리닉 & 즐거운 골프'를 싣고 있습니다. 프로골퍼의 수준높은 무료 지도로 아마골퍼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 클리닉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광주일보 체육부(220-06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교포 김벌리 김(15)이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최연소 챔피언에 등극하는 기쁨을 토했다.

하와이 태생의 김벌리 김은 지난 14일 미국 오리건주에서 36홀째 플레이 방식으로 열린 US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결승서 독일의 카타리야 샬렌베르크를 꺾고 우승을 일궜다. 만 15세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이라는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렇듯 훌륭한 후배들이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LPGA 무대에서 한국여인들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LPGA 대회 우승권에는 항상 한국여자들이 거론된다.

이같은 결과에는 조기교육의 열기가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어렸을 적부터 골프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키워 LPGA무대로 진출하기 때문이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골프는 특히 '근육 기억 운동'이기 때문에 유연성과 이해력이 풍부한 어렸을 적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주말골퍼들도 마찬가지. 골프 입문을 망설이는 예비 골퍼들은 기왕 골프를 하려면 유연성과 체력이 자하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싱글이나 루우 핸디캡과가 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주 골프클리닉은 45세의 헤어디자이너인 지천권(동구 계림동)씨가 찾았다. 5년 경력에 보기플레

지나치게 머리고정하면 어깨턴 방해·오버스윙 유발 드라이버 샷, 테이크백할때 길게 빼야 슬라이스 막아

이를 하는 지씨는 최근 사업상 5개월 정도 클럽을 잡지 못해 모든 샷이 엉망이 됐으며 용기를 냈다.

김진철 프로는 지씨의 어프로치부터 살펴보았다. 지씨는 어프로치 어드레스에서 오른발에 체중을 싣고 타켓을 향해 너무 오픈돼 있어 불안한 자세를 연출했다.

김 프로는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켓 방향과 90도가 되게 선 다음 왼발을 뒤로 약간 뺀 뒤 오픈하고 체중을 왼발에 두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체중이동을 하지 않고 정확한 샷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또 지씨는 클럽페이스를 너무 닫아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를 보내지 못하는 등 거리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피칭이나 샌드의 페이스를 열고 깎아치는 어프로치 샷을 권했다. 그래야만 그린위에서 공이 구르는 거리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정확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체중을 왼발에 두고 페이스를 열고 하는 스윙에 대해 처음에는 적응을 하지 못했으나 10여분

이 지나자 예전의 감각을 회복하면서 어프로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

김 프로는 지씨의 어프로치 감각이 살아나자 7번 아이언 스윙을 주문했다. 지씨의 아이언 샷을 지켜보던 김 프로는 어깨턴과 톱에서 손목이 풀리는 두 가지를 지적했다.

지씨는 머리를 지나치게 고정하려다 어깨턴을 방해받고 있었으며 어깨 턴이 이뤄지지 않자 톱에서 오버스윙이 일어나 손목이 풀리는 동작을 유발하고 있었다.

김 프로는 이러한 동작을 바로 잡기 위해 어드레스에서 머리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고 시선은 공 뒤쪽을 보도록 했다. 그리고 역K자 모양이 되도록 어드레스를 수정했다. 지씨의 어깨 턴이 이뤄지게 돼자 김 프로는 그림을 교정했다. 김 프로는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위크그립을 많이 잡고 있는데 최근 스트롱그립이 대세이며 이 그립을 잡게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힘이 실린 샷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선되지 않자 김 프로는 두발을 모으고 팔로만 임팩트를 하는 '반스윙'을 하도록 했다. 반스윙을 하면서 임팩트 감각을 찾게된 지씨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스윙에서 보다 향상된 스윙 감각을 갖게 됐다.

김 프로는 지 씨에게 어드레스에서 코킹을 먼저 한 다음 톱 자세를 만드는 것이 아마추어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언 샷이나 드라이버 샷 모두 다운스윙에서 오른팔이 자신의 오른쪽 골반에 닿을 듯이 몸 중심에 붙어서 샷을 해야만 체중이 실리고 정확한 샷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언 샷에 대한 감각을 익힌 지씨는 드라이버 샷에 대한 자문도 구했다.

김 프로는 지 씨가 어드레스에서 드라이버를 급격하게 들어올리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거나 왼쪽으로 감기는 폴샷이 발생한다며 어드레스에서 테이크백을 할 때 드라이버를 길게 빼면서 어깨 턴이 되도록 해야만 슬라이스나 감기는 샷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프로는 골프 스윙은 원을 크게 그리면 그릴 수록 비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원을 크게 그리는 스윙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 =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지도 = 프로골퍼 김진철 (승원대학 겸임교수)



▲드라이버를 어깨에 매는 지씨의 잘못된 톱사체(위)와 코킹과 어깨턴을 통해 왼팔이 쪽 피진 자연스러운 톱사체(아래).

▲정확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어프로치를 위해서는 클럽페이스를 닫지(위) 말고 열어야 한다.(아래)

▲두발을 모으고 반스윙을 하는 것은 오랜만에 연습장을 찾았을 때 스윙감각과 임팩트 감각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연습방법이다.

▲오른발에 체중이 걸려있으며 왼발이 너무 오픈된 잘못된 어프로치 자세.

▲김진철 프로가 클럽을 릴리스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올리는 어프로치 자세를 지도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Benefit'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The ad is organized into a grid of boxes, each containing the name of a business, it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dress and phone number). The businesses listed include restaurants, cafes, and service providers across different districts of Gwangju.